

송편의 역설



연 윤 열 의
푸드톡톡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은 추석이다.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은 단연 송편이다. 쌀을 도정하고 분쇄한 후 쌀가루로 반죽하고 속을 채우고 찌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음식 문화와 가족의 따뜻한 정을 이어왔다. 하지만 올해 추석은 좀 달랐다. 송편 한 알 값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치솟았다.

이 ‘풍요의 역설’은 단순히 쌀값의 변동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초래한 시장의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과도한 매입(총 62만톤)으로 재고를 정부 창고에 ‘잠그는’ 비축 착시 효과를 낳아 시장 유통량을 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 재고가 부족해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 올해 8월, 정부가 비축 쌀 5만5000톤(추가 3만톤)을 ‘대출’ 형태로 시장에 풀었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공급 부족 신호’로 해석해 기존 재고를 더 쌓아두었고 이는 유통 감소와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

래했다고 보도했다.

쌀의 시장격리와 비축정책은 원래 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착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매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가격하락을 막는 것이다. 올해도 26만톤 이상의 쌀을 격리 매입하며 총 비축량이 80만 톤을 웃돌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시장 유통량을 인위적으로 줄여가격을 끌어 올린다는 점이다. 정부가 쌀을 ‘잠그면’ 민간 유통업체들은 재고 부족을 우려해 확증 편향적 착시 현상으로 더 쌀아 두려 하고 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추석 송편처럼 쌀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왜곡현상이 더 뼈아프게 느껴진다. 송편 한 봉지(20kg) 가격이 6만원을 넘어서며, 김밥집이나 떡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메커니즘을 망가뜨린 전형적인 사례다. 농업경제학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같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쌀의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REI의 연구에 따르면 벼의 재

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량의 확대가 식량정책의 기본 기조가 돼야 한다고 하였다. 쌀의 소비패턴이 줄어드는 거대한 흐름앞에서 과잉 생산을 억제하지 않으면 ‘풍요 속 빈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석 송편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우리 농업과 식문화의 상징이다. 정부 정책이 시장을 왜곡해서 송편 값이 오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상징적인 사례로 농민의 소득 보호와 소비자 부담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비축 쌀 정책은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쌀의 과잉 생산을 관리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는 보다 정밀한 공급 정책 수립을 통해서 정부의 단기 개입을 피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보호주의에서 벗어나 재배 감축과 소비 촉진 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가루쌀 같은 대안이 쌀 산업을 살릴수 있는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다. 올해 추석 비싸게 빚은 송편을 보며 우리 밥상의 미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식량안보산업전략연구원 식량안보연구센터장

370만 신용사면과 ‘下石上臺’



기지 수첩
안 재 선
(유통&라이프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어 버리면 언젠가 그 돌들은 무너지고 만다. 모든 일을 대할 때 당장의 임시방편만 고심할 게 아니라 구조부터 탄탄하게 쌓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의 370만 명 신용사면은 ‘하석상대(下石上臺)’다.

정부가 이달 시행하는 신용사면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올해 연말까지 모두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차원에서다. 신용사면을 받게 되면 연체 이력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오른다. 370만 명이 모두 대

출을 상환하게 된다면, 이들 중 약 29만 명이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신용사면이 단순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약차주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도 이는 다시 연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신용사면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해도 이를 또 갚지 못하면 악순환의 반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2분기 취약차주 수의 비중은 14.2%로 지난 2021년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다. 취약차주 중 대출 비중 역시 12.2%로 같은 기간 꾸준히 오름세다.

이는 단순 사면이 취약차주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21년에는 문제인 정부가 250만명의 신용사면을,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가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과거 선례들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오히려 이런 식의 사면 조치가 계속되면, 애초에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차주들의 의지가 꺾인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도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사면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면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기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돼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약차주 문제는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아랫돌로 윗돌을 괴는 게 아닌 새로운 돌을 쌓을 때다.

/wotjs4187@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4일 (음 8월 2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경험자의 학습을 이어가는 것도 현명. 48년생 변화 속에서 반드시 기회가 온다. 60년생 오전은 어려워도 오후에 풀리니 힘써보라. 72년생 집안이 잘되니 집안에 손님이 많아진다. 84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운이 열린다.



37년생 집에 가면 가족 문제로 근심 나오면 반기는 곳 없어 고독. 49년생 타협의 연속이다. 61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도움받는다. 73년생 젊은 남편이 먼저 가도 따라갈 수도 없다. 85년생 칭찬을 남발하면 실업어 보인다.



38년생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50년생 열정과 힘이 넘치는 하루. 62년생 옷을 준비해 하고 사람을 만나면 된다. 74년생 돈은 부족해도 의리는 깊어아 할 터. 86년생 좀 더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해야만 할 듯하다.



39년생 병 주고 약 주니 환장. 51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기 힘드니 조금만 힘내라. 63년생 뛰어난게 아름다우니 성형은 끝세. 75년생 기술 배울 때 누구든 처음에는 초보의 수준 힘낼 것. 87년생 살면서 생긴 지혜가 도움을 준다.



40년생 왕 자신감에 빚만 진다. 52년생 달리려고만 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라. 64년생 연인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해야. 76년생 재물 늘어남에 조금해하지 말고 세월을 지켜봐야 할 것. 88년생 몸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41년생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53년생 서북 이사는 무방하다. 65년생 전심전력을 다 해보면 답이 나옴. 77년생 길을 헤매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해보도록. 89년생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 볼 때.



42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보라. 54년생 목이 마르면 스스로 우물을 파보기도 해야. 66년생 서로의 믿음은 약속에서 나온다. 78년생 이상 상대를 너무 채근하면 튕겨 나간다. 90년생 사랑 타령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43년생 옛날 일을 잘 알면 오늘도 알게 된다. 55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자제. 67년생 작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얻어라. 79년생 살다 보면 온갖 일에 스스로 많이 알게 되니 힘내라. 91년생 지나온 세월이 그나마 행복했다.



44년생 가려는 사람은 붙잡지 마라. 56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서운함도 크다. 68년생 연인에게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80년생 한낮의 꿈처럼 덧없는 인생이겠으나 젊은 날 많은 시간 다시 활용. 92년생 주변 눈치를 보는 하루.



45년생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57년생 겉모양은 화려하나 실속 없는 하루. 69년생 제발 이간질하지 말 것. 81년생 지금 재물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계획을. 93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떠맡으니 심신이 피곤하다.



46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도를. 58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가지 마라. 70년생 실력이 부족하니 미래에 닥칠 일이 원치 불안. 82년생 집안의 번성도 내 대에서 마칠 것 같다. 94년생 책임진 일이 쉽게 처리되나 성과는 천천히 온다.



47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받는다. 59년생 작은 실수를 확대하여 비판하지 마라. 71년생 바쁘더라도 우편물을 확인하는 습관을. 83년생 아버지의 일을 거들고 행복하며 수익도. 95년생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김상회의四季

상달 고사



삼국시대로부터 전통적으로 불교가 강했던 우리나라는 달이면 달마다 초하루와 보름은 물론 예불과 함께 호국기도, 발원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전통을 중시하여 토속신도 불교에 흡수되어 산신각이나 칠성각 등을 경내에 함께 축조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안위시키며 불교 안에 녹아들도록 했다. 특이하게도 우리 민족의 시조와 일컬어지는 단군왕검에 대한 경외는 단군 신앙이라는 국수적 민간신앙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구한말 대종교(大倣敎)가 바로 그것이다. 대종교는 단군 숭배 사상으로서 옥황상제와 동일인인 환인(桓因), 그 아들인 환웅(桓雄)과 환웅의 아들인 환검(桓儉)의 삼위일체로서 ‘한얼님’을 신앙적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종교로서 이를 ‘단군교’라고도 한다. 환인을 조화신, 환웅을 교화신, 환검을 치화신(治化神)으로 그 속성을 부여했는데, 이 세 분이 하느님의 순수 옛말인 ‘한얼님’이라 칭하며 신앙적 대상으로 존중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종교가 태동한 것이다.

기록에는 단군왕검이 백두산, 묘향산과 함께 마니산에서 재를 올렸다는데, 이 전통 중에서도 강화 마니산은 하늘에 올리는 재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이다. 지금도 해마다 개천절에는 강화 마니산 참성단(塹星壇)에서 하늘의 문이 우리 민족에게 열린 것을 기념하며 단군을 추앙하며 제를 올린다. 일종의 국가적 상달 고사이다. 일반 가정들도 음력 시월 상달이 되면 이집 저집 할 것 없이 시루떡을 해서 고사(告祀)를 지냈다. 대청 위에 시루째 떡을 두고 그 앞에 청수한 그릇과 촛불을 켜 놓은 뒤 시루 양옆에 마른 북어를 세우고 대주를 비롯해 집안사람들이 두루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절을 했다. 또한, 집 안 곳곳에 떡을 놓아 온 집안이 두루 잘 되기를 기원하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6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3	7	4
9		3		1				
7			3		2			9
		4	6		5	1		
	7							4
		9	4		3	7		
	9		2		8			7
				4		9		8
3	8	7						6

6		9	2					5
	1							9
			7		5			2
		5	4	3	6	2		8
			1		7			
9		6	5	7	2	3		
5			3		4			
	7							5
4					9	5		7

9	1	2	7	6	9	2	8	8
8	8	6	9	7	2	1	1	9
2	9	9	8	2	1	6	7	
9	2	2	8	8	7	6	9	1
8	7	8	1	2	6	9	2	9
6	8	1	9	2	9	7	8	2
1	6	7	2	9	8	8	9	2
2	9	9	2	1	8	8	7	6
7	2	8	6	9	1	9	2	8

2	8	9	6	9	8	1	2	7
7	9	9	1	2	6	8	2	8
6	2	1	7	8	8	2	9	9
1	8	8	2	1	9	9	7	6
9	7	8	2	6	1	8	9	2
8	2	9	9	8	7	9	6	1
2	9	6	9	1	2	7	8	8
8	6	7	8	9	9	2	1	2
9	1	2	8	7	2	6	8	9